

보고 일시	2023. 2. 9.(목) 12:00 2023. 2. 10.(금) 초간	배포 일시	2023. 2. 9.(목)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정수 (044-202-8920)
		담당자	서기관   김현아 (044-202-8923)

##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한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작업자는 위험 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도 잊지 않게 된다.

아울러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이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준다.

특히, 매일매일 작업방식이 바뀌거나 작업자가 바뀌는 현장의 경우 주기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작업 직전에 핵심적인 안전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10분 내외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 수도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로서, 그날그날 작업절차의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위험요인 통제방안·안전작업절차·최근의 사고사례 등 전달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다.

- \* [논의주제 예시] ① 작업절차의 변경내용, ② 새로운 위험요인, ③ 위험 감소방안, ④ 최근의 이슈나 사고사례, ⑤ 일일·주간 작업 일정, ⑥ 안전작업 절차 강조, ⑦ 신규 도입 장비의 사용법, ⑧ 날씨·계절변화에 따른 위험 등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방식이 중대 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하고 공유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를 계기로 현장 단위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가 활성화 되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담당 부서 <총괄>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금정수 (044-202-8920)
		담당자	서기관	김현아 (044-202-8923)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지원단	책임자	단 장	이동욱 (052-703-0621)
		담당자	차 장	정호석 (052-703-0624)

단 계	내 용
<p>1 TBM 사전 준비</p>	①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실시
	②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 확인
	<p>③ 작업 현황 파악</p> <p>① 작업 물량, ② 작업 범위, ③ 작업내용 ④ 필요한 보호구</p>
	<p>④ TBM 전달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p> <p>① 위험성평가 결과, ② 사고보고서, ③ 안전작업 지침 및 규정</p>
<p>2 TBM 실행 과정</p>	<p>①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p> <p>* 과도한 음주, 37°C 이상 체온, 약물 복용 여부 등 이상 유무</p>
	<p>②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안전 작업절차 / 대책 공유·전달</p> <p>① 최근 작업장 사고사례 공유</p> <p>②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분위기로 작업자의 발표 적극 권장</p> <p>③ 다양한 매체, 방법(스마트폰, App 등)으로 전달력 제고</p>
	<p>③ 작업자가 TBM 내용 숙지하였는지 확인</p> <p>① 중점(One point) 위험요인과 대책 숙지 여부</p> <p>② 외국인 포함 시 통·번역 등 효과적인 전달 방안 마련</p> <p>* 지적하거나 확인할 사항을 작업자가 구호로 복창할 수 있음</p>
	<p>④ 위험요인, 불안정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확인</p> <p>① 멈춘다(Stop) → ② 확인한다(Look), → ③ 평가한다(Assess) → ④ 관리한다(Management)</p>
<p>3 TBM 환류 조치</p>	①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②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보관
	③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

위험의 사전 인지! 위험성평가를 통한 Tool Box Meeting으로!

 왜 도입하게 되었나요?

조선업은 선종구조가 복잡하며 작업조건이 상이하고 협소한 공간작업, 고소작업 등으로 협착, 추락, 감전, 충돌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들은 작업의 이해도가 낮고 작업장 이동도 잦은 특성으로 “무엇이 위험한지” 등 위험의 인식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 전원을 참여시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투입 전에 중요 위험요인을 TBM을 통해 교육하고 관리하였다.



 어떻게 운영하였나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 「안전보건활동 운영지침」을 제정, 일일작업내용, 안전준수 사항, 보호구 착용, 건강상태 점검 등 작업 전 TBM교육을 정례화시키고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다. 특히, 작업단위 소집단 간의 위험예지훈련의 일종인 “Touch & Call”을 병행하여 위험요소를 공유하고 서로 간 안전작업을 다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Touch & Call) 동료들끼리 몸을 맞대거나 손을 맞잡고 위험포인트를 지적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활동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일안전작업 내용 숙지로 공정별 재해예방 효과가 크고, 위험성 인지 향상, 위험에 대한 대처방법 및 대응력 강화, 보호구 착용 숙지 등 근로자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동료간의 안전코치 역할도 형성되었으며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는 '22년도 산재예방 유공 은탑 산업훈장을 수훈받았다.

